

보도 일시	2023. 3. 2.(목) 12:00 2023. 3. 3.(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3. 2.(목)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김용욱 (044-202-8812) 전문위원 이현숙 (044-202-8813)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주요 현황 >

-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 사고사망만인율 0.43‰
 - ▲ (업종별) '건설' 402명, '제조' 184명, '그 외' 288명 발생
 - ▲ (유형별)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발생
 - ▲ (규모별) '50인 미만' 707명, '50인 이상' 167명 발생
 - ▲ (연령별) '60세 이상' 380명, '50~59세' 259명, '40~49세' 134명 등 발생
 - ▲ (특고) '퀵서비스 기사' 39명, '건설기계종사자' 14명, '화물차주' 7명, '택배기사' 3명 발생

[총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산업재해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사고 발생은 '21년 이전이나, '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 된다.

*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18006호)로, 산재로 인한 사고·질병, 사망·부상 현황 등을 '75년부터 집계

** 예) '20년에 발생한 사고여도 '21년에 산재보상 신청 후 '22년 보상 승인되었다면, '22년 통계로 집계('22년 승인된 사고사망 중 '22년 발생 62.7%, '21년 이전 발생 37.3%)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1년(828명) 대비 증가(+ 46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동일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 ▲ 사고사망자 수(명):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

↳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 및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00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에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포함

[세부분석]

① 업종별 현황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15명)과 「제조업」(전년 동)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업종이었으나, '22년에는 67.1%로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27명)과 「운수·창고·통신업」(+ 32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 건설업: ('20.) 458명(51.9%) → ('21.) 417명(50.4%) → ('22.) 402명(46.0%)

▲ 제조업: ('20.) 201명(22.8%) → ('21.) 184명(22.2%) → ('22.) 184명(21.1%)

** ▲ 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건물 경비, 청소 등 포함)에서 18명 증가

▲ 운수·창고·통신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배달종사자 등 포함)에서 27명 증가

② 재해유형별 현황

「떨어짐」에서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떨어짐」(△29명)·「끼임」(△5명) 사고가 감소한 반면, 「부딪힘」(+ 2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21명)가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증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39명, + 21명)의 사고사망 증가가 영향을 주었다.

③ 규모별 현황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39.1%), 「50~299인」 사업장에서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4%)이 발생했다.

비교적 산재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9%*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20년 이후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하였다.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20.) 714명(80.9%) → ('21.) 670명(80.9%) → ('22.) 707명(80.9%)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천만원 미만」 57명(14.2%), ▲「2천만원~1억원 미만」 60명(14.9%), ▲「1~50억원 미만」 162명(40.3%), ▲「50~120억원 미만」 25명(6.2%), ▲「120~800억원 미만」 49명(12.2%), ▲「800억원 이상」 42명(10.4%)

④ 연령별 현황

「60세 이상」에서 38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59명(29.6%), 「40~49세」 134명(15.3%), 「30~39세」 66명(7.6%), 「30세 미만」 35명(4.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연령별 경찰인구 비중('22 경찰조사, 통계청): ▲「30세 미만」 14.3%, ▲「30~39세」 19.0%, ▲「40~49세」 22.2%, ▲「50~59세」 23.5%, ▲「60세 이상」 20.9%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고사망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 ▲「50~59세」: ('19.) 295명(34.5%) → ('20.) 292명(33.1%) → ('21.) 251명(30.3%) → ('22.) 259명(29.6%)

▲「60세 이상」: ('19.) 285명(33.3%) → ('20.) 347명(39.3%) → ('21.) 352명(42.5%) → ('22.) 380명(43.5%)

⑤ 특고직종별 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1년 대비 27명 증가(+75%)하였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18) 9개 → ('19) 9개 → ('20) 14개 → ('21) 15개 → ('22) 18개

▲산재보험적용자수: ('18) 62,126명 → ('19) 74,170명 → ('20) 183,822명 → ('21) 762,937명 → ('22) 804,987명

▲특고 사고사망자수: ('18) 9명 → ('19) 14명 → ('20) 29명 → ('21) 36명 → ('22) 63명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에서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향후 사고사망 감축 방안]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공지능(AI) 정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사고사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3대 사고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 불과 50cm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주변의 작업도구에 부딪히며 사망한 사례
→ 작업 전 간단한 주변정리만으로도 예방 가능

또한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하여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로드맵'에 기반한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특고 종사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국토부 등 정부기관 및 배달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속 강조*할 계획이다.

* 배달업체 안전수칙 준수 집중 점검 진행 중(2.2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70%를 차지하는 고령 근로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특고 종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가이드·교육자료를 배포하여 특고 종사자가 더 이상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통계 분석 자문 회의’(‘22.3월)를 통해 ‘22년 산재 현황 통계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합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전체 현황

<총괄>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

- (전체) '22년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1년 대비 46명 증가하였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21년과 동일하여 '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였다.

<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



- (업종별) 「건설업」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건설업」(△15명)은 전년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27명)과 「운수·창고·통신업」(+32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1.61‰)이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0.97‰), 「제조업」(0.46‰), 「서비스업」(0.1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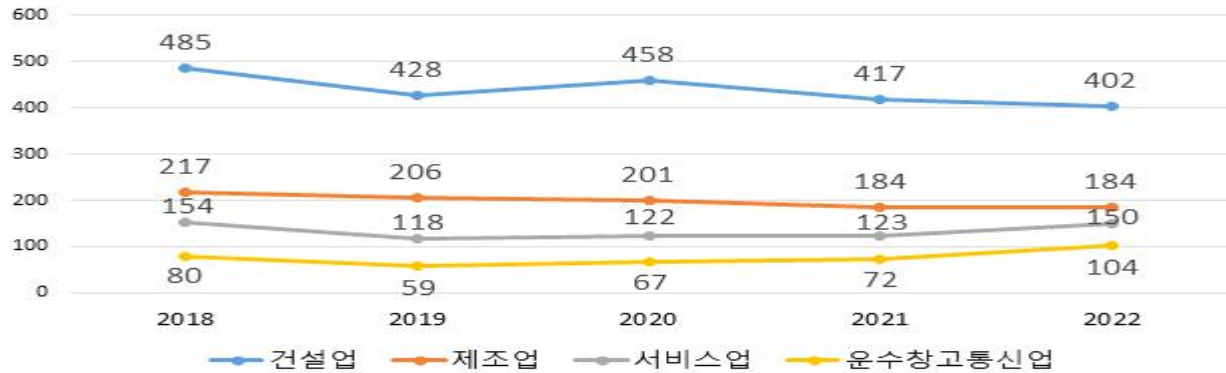
<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사망자수	만인율	사망자수	비중	만인율	사망자수	비중	만인율	사망자수	비중	만인율	사망자수	비중	만인율	사망자수	비중	만인율
'22년	874	0.43	402	46.0	1.61	184	21.1	0.46	150	17.2	0.13	104	11.9	0.97	34	3.9	0.30
'21년	828	0.43	417	50.4	1.75	184	22.2	0.46	123	14.9	0.11	72	8.7	0.72	32	3.9	0.30
증감	46	0.00	△15	△4.4	△0.14	0	△1.1	0.00	27	2.3	0.02	32	3.2	0.25	2	0.0	0.00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임업, 어업, 농업

< 5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 (규모별) 「5~49인」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39.1%)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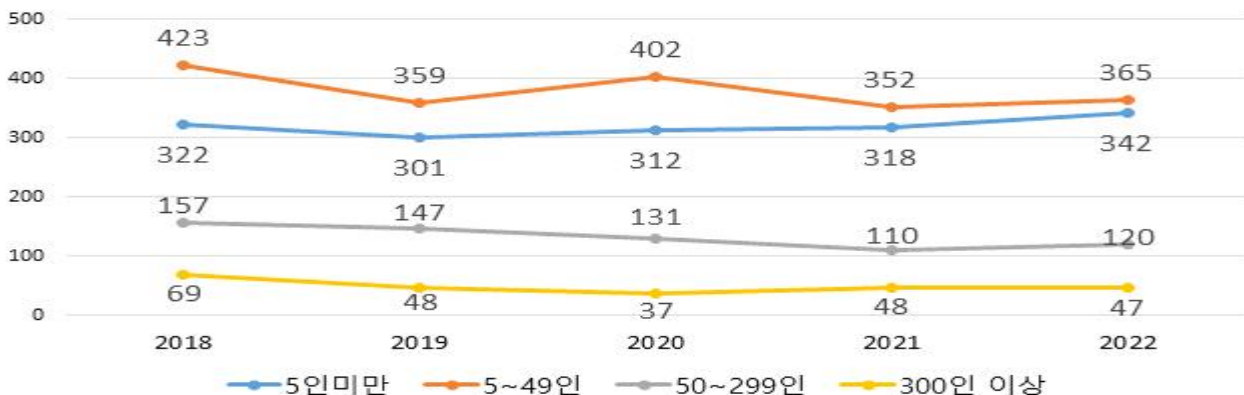
- 또한, 「50~299인」 사업장에서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4%) 발생했다.

<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2년	874	0.43	342	39.1	1.00	365	41.8	0.42	120	13.7	0.25	47	5.4	0.14
’21년	828	0.43	318	38.4	0.99	352	42.5	0.42	110	13.3	0.24	48	5.8	0.15
증감	46	0.00	24	0.7	0.01	13	△0.7	0.00	10	0.4	0.01	△1	△0.4	△0.01

< 5년 간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



□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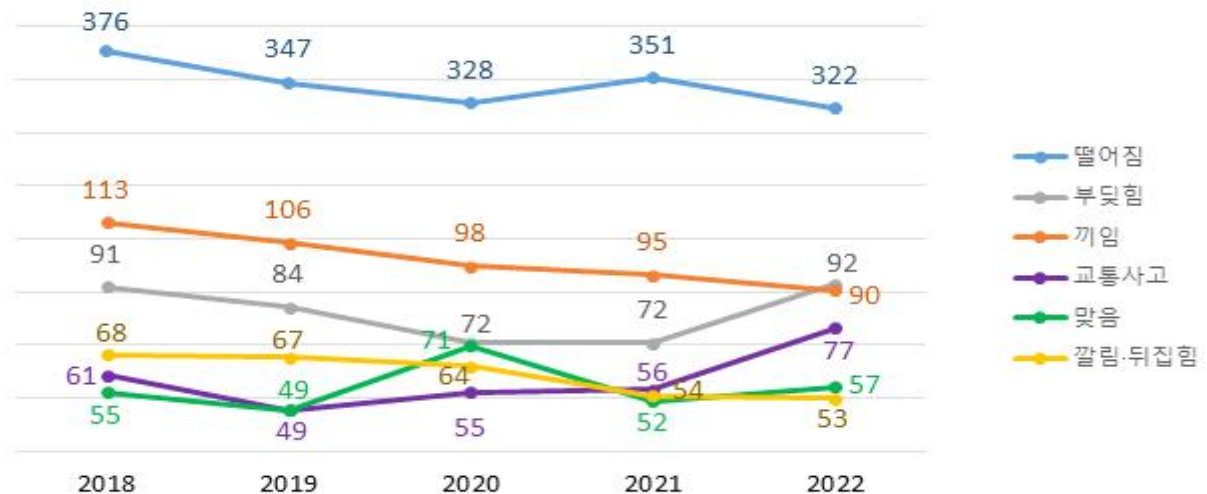
○ '21년 대비 「사업장 외 교통사고」(+ 21명), 「부딪힘」(+ 20명) 유형에서 증가했고, 「떨어짐」(△29명), 「끼임」(△5명) 유형에서 감소했다.

<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부딪힘		끼임		사업장외 교통사고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874	322	36.8	92	10.5	90	10.3	77	8.8	57	6.5	53	6.1	183	20.9
'21년	828	351	42.4	72	8.7	95	11.5	56	6.8	52	6.3	54	6.5	148	17.9
증감	46	△29	△5.6	20	1.8	△5	△1.2	21	2.0	5	0.2	△1	△0.4	35	3.0

< 5년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업종별 세부 현황

1 건설업: (2022년) 402명(△15명)

- (총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02명으로 전년대비 15명 감소했고, 최근 5년 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사망자수(명)	485	428	458	417	402
사고사망만인율(‰)	1.65	1.72	2.00	1.75	1.61

-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 162명(40.3%), 「2천만원~1억원 미만」 60명(14.9%), 「2천만원 미만」 57명(14.2%)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69.4%가 발생했으며,
 - 「120~800억원 미만」 49명(12.2%), 「800억원 이상」 42명(10.4%), 「50~120억원 미만」 25명(6.2%)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2천만원 미만」(△11명), 「2천만원~1억원 미만」(△2명), 「1~50억원 미만」(△6명), 「50~120억원 미만」(△10명), 「800억원 이상」(△1명)에서는 감소, 「120~800억원 미만」(+14)에서는 증가했다.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1억원		1~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402	57	14.2	60	14.9	162	40.3	25	6.2	49	12.2	42	10.4	7	1.7
'21년	417	68	16.3	62	14.9	168	40.3	35	8.4	35	8.4	43	10.3	6	1.4
증 감	△15	△11	△2.1	△2	0.0	△6	0.0	△10	△2.2	14	3.8	△1	0.1	1	0.3

-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402명 중 「떨어짐」 215명(53.5%)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으며,
 - 「부딪힘」 48명(11.9%), 「무너짐」 30명(7.5%), 「물체에 맞음」 22명(5.5%), 「깔림·뒤집힘」 22명(5.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떨어짐」(△33명), 「물체에 맞음」(△8명), 「깔림·뒤집힘」(△4명)에서 감소, 「부딪힘」(+11명), 「무너짐」(+5명)에서 증가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402	215	53.5	48	11.9	30	7.5	22	5.5	22	5.5
'21년	417	248	59.5	37	8.9	25	6.0	30	7.2	26	6.2
증 감	△15	△33	△6.0	11	3.0	5	1.5	△8	△1.7	△4	△0.7

② 제조업: (2022년) 184명(전년 동)

- (총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84명으로 '21년 대비 동일하나,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사망자수(명)	217	206	201	184	184
사고사망만인율(‰)	0.52	0.51	0.50	0.46	0.46

- (세부업종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89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31명(16.8%), 「식품제조업」 17명(9.2%),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12명(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제조업 세부업종별(중분류)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기타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2년	184	0.46	89	48.4	0.60	31	16.8	0.71	17	9.2	0.50	12	6.5	1.03	35	19.0	0.22
'21년	184	0.46	102	55.4	0.69	25	13.6	0.57	11	6.0	0.33	1	0.5	0.09	45	24.5	0.28
증감	0	0.00	△13	△7.0	△0.09	6	3.2	0.14	6	3.2	0.17	11	6.0	0.94	△10	△5.5	△0.06

- **(규모별)** 「5~49인」 사업장에서 103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44명(23.9%), 「50~299인」 27명(14.7%), 「300인 이상」 10명(5.4%) 순으로 많이 발생

< 규모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2년	184	0.46	44	23.9	0.97	103	56.0	0.61	27	14.7	0.27	10	5.4	0.12
'21년	184	0.46	42	22.8	0.99	93	50.5	0.55	34	18.5	0.33	15	8.2	0.18
증감	0	0.00	2	1.1	△0.02	10	5.5	0.06	△7	△3.8	△0.06	△5	△2.8	△0.06

- **(재해유형별)** 「끼임」에서 51명(27.7%)으로 가장 많이 발생, 「떨어짐」 44명(23.9%), 「물체에 맞음」 21명(11.4%), 「깔림·뒤집힘」 19명(10.3%), 「폭발·파열」 11명(6.0%) 순으로 많이 발생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폭발·파열		부딪힘		기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2년	184	51	27.7	44	23.9	21	11.4	19	10.3	11	6.0	8	4.3	30	16.3
'21년	184	58	31.5	47	25.5	17	9.2	12	6.5	11	6.0	12	6.5	27	14.7
증감	0	△7	△3.8	△3	△1.6	4	2.2	7	3.8	0	0.0	△4	△2.2	3	1.6

-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64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48명(26.1%),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31명(16.8%),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체 작업」 18명(9.8%) 순으로 많이 발생

(단위: 명, %, %p)

구분	계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물체의 가공·취급작업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체작업		청소 및 부가적작업		기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2년	184	64	34.8	48	26.1	31	16.8	18	9.8	9	4.9	14	7.6
'21년	184	54	29.3	76	41.3	33	17.9	13	7.1	6	3.3	2	1.1
증감	0	10	5.5	△28	△15.2	△2	△1.1	5	2.7	3	1.6	12	6.5

참 고

그 밖의 업종 세부 현황(건설·제조업 외)

< 그 밖의 업종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2년	288	150	52.1	104	36.1	34	11.8
'21년	227	123	54.2	72	31.7	32	14.1
증감	61	27	△2.1	32	4.4	2	△2.3

①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21) 123명 → ('22) 150명, +27명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규모별) 「5~49인」 77명(51.3%), 「5인 미만」 57명(38.0%)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9.3% 발생
-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47명(31.3%), 「부딪힘」 24명(16.0%), 「넘어짐」 19명(12.7%), 「끼임」 11명(7.3%), 「사업장 외 교통사고」 10명(6.7%) 순으로 발생
-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0명(33.3%),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31명(20.7%), 「청소 및 부가적작업」 29명(19.3%),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 14명(9.3%), 「채광, 벌목 등의 작업」 14명(9.3%) 순으로 발생

② 운수·창고·통신업: ('21) 72명 → ('22) 104명, +32명

- (규모별) 「5인 미만」에서 40명(38.5%), 「5~49인」 35명(33.7%), 「50~299인」 18명(17.3%), 「300인 이상」 11명(10.6%) 순으로 발생
- 「사업장 외 교통사고」 65명(62.5%), 「부딪힘」 10명(9.6%), 「떨어짐」 9명(8.7%), 「끼임」 4명(3.8%), 「깔림·뒤집힘」 4명(3.8%) 순으로 발생
-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92명(88.5%),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4명(3.8%), 「청소 및 부가적작업」 4명(3.8%)

③ 그 외 업종: ('21) 32명 → ('22) 34명, +2명

- 광업 12명(+3명), 임업 11명(△1명), 농업 7명(△2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명(+2명), 어업 1명(△1명), 금융 및 보험업 1명(+1명)

인적속성별 세부 현황

-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38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59명(29.6%), 「40~49세」 134명(15.3%), 「30~39세」 66명(7.6%), 「30세 미만」 35명(4.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30세 미만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874	35	4.0	66	7.6	134	15.3	259	29.6	380	43.5
’21년	828	37	4.5	71	8.6	117	14.1	251	30.3	352	42.5
증감	46	△2	△0.5	△5	△1.0	17	1.2	8	△0.7	28	1.0

- **(외국인)**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9.7% 수준이며, ’21년 대비 17명 감소했고,
- 건설업에서 47명(+5명), 제조업에서 22명(△12명), 그 밖의 업종에서 26명(△10명) 발생했다.

(단위: 명, %, %p)

연도	계	건설		제조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2년	85	47	55.3	22	25.9	16	18.8
’21년	102	42	41.2	34	33.3	26	25.5
증감	△17	5	14.1	△12	△7.4	△10	△6.7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특고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승인(유족급여)을 기초로 하는 사고사망 통계 집계 방식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사고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 **(특고)** 고용형태 변화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1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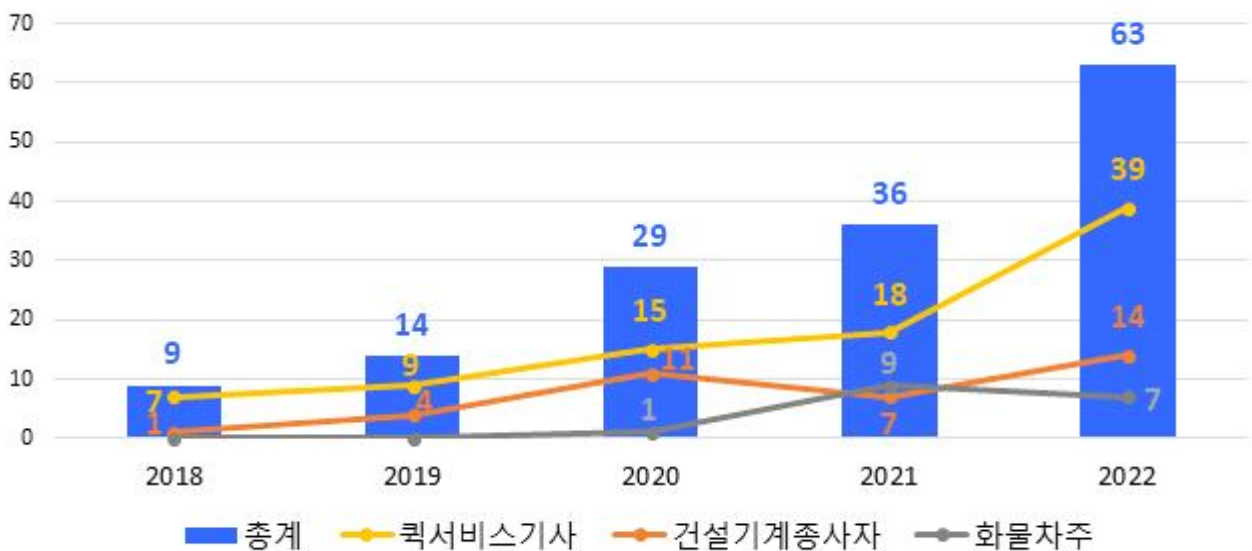
-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퀵서비스기사」(+ 21명), 「건설기계종사자」(+ 7명), 「택배기사」(+ 2명)는 증가, 「화물차주」(△2명), 「대리운전기사」(△1명)는 감소했다.

< 특고 사망사고 발생 현황('21년 vs '22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63	39	61.9	14	22.2	7	11.1	3	4.8	0	0.0
'21년	36	18	50.0	7	19.4	9	25.0	1	2.8	1	2.8
증감	27	21	11.9	7	2.8	△2	△13.9	2	2	△1	△2.8

< 최근 5년간 특고 사망사고 현황 >



-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고사망자는 6명으로 '21년 대비 1명 증가하였다.

* '0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보험 임의 가입 → '20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지역별 세부 현황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 '22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56명(29.3%), 서울 85명(9.7%), 경남 75명(8.6%), 충남 57명(6.5%), 경북 57명(6.5%) 등 5곳이며,
 - '21년 대비 사고사망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35명), 서울(+19명), 대구(+18명), 대전(+9명), 인천(+6명), 광주(+4명), 충북(+2명), 충남(+1명)으로 8곳이며,
 - 감소한 곳은 부산(△13명), 경북(△10명), 울산(△8명), 전북(△7명), 경남(△6명), 세종(△2명), 제주(△2명) 등 7곳이다.
- 사고사망만인율이 0.43‰를 넘는 곳은 강원(0.85‰), 전남(0.69‰), 경남(0.63‰), 충남(0.60‰), 경북(0.55‰), 충북(0.52‰), 경기(0.51‰), 전북(0.50‰), 인천(0.45‰), 대구(0.45‰) 등 10곳이다.

< '22년 광역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단위: 명, ‰, %pp)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체	874	+46	0.43	0.00	경기	256	+35	0.51	+0.05
서울	85	+19	0.18	+0.03	강원	46	0	0.85	△0.05
부산	41	△13	0.37	△0.12	충북	36	+2	0.52	0.00
대구	32	+18	0.45	+0.25	충남	57	+1	0.60	△0.02
인천	46	+6	0.45	+0.04	전북	30	△7	0.50	△0.14
광주	18	+4	0.38	+0.08	전남	49	0	0.69	△0.03
대전	20	+9	0.36	+0.16	경북	57	△10	0.55	△0.13
울산	14	△8	0.29	△0.18	경남	75	△6	0.63	△0.07
세종	4	△2	0.33	△0.20	제주	8	△2	0.34	△0.10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 '22년 한 해 동안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 경기 화성시(42명), 경남 창원시(22명), 경기 고양시(19명), 인천 서구(18명), 경기 양주시(16명), 서울 강남구(15명), 경기 평택시(14명), 전남 여수시(14명), 경기 용인시(13명), 경기 김포시(13명), 경북 포항시(13명), 경기 수원시(12명), 충북 청주시(12명), 충북 천안시(12명), 대구 달성군(11명), 대전 유성구(11명), 경기 안양시(11명), 경기 안산시(11명), 경기 남양주시(11명), 경기 파주시(11명), 서울 송파구(10명), 충남 아산시(10명)로 총 22곳이다.

①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란 무엇인지?

- 정부는 '75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현황(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을 생산해 왔음
- * ▲요양급여 승인건수 → 재해자 산출 ▲유족급여 승인건수 → 사망자 산출
- 이에 따라, 사고·질병, 사망·부상 등 모든 종류의 산재에 대한 통계를 고용부 홈페이지(분기) 및 KOSIS(연간)를 통해 발표하고 있고,
-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사고사망 현황'은 중요 정책목표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왔음

② 1.19.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와의 차이점은?

- 1월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조사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고,
- 유족급여 보상승인 통계(승인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 * 예) '22년 사고발생 → '23년 보상승인된 경우, '22년 조사통계와 '23년 승인통계에 각각 산입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상 정의규정

-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 다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업법 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 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대상이 아닌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집계되고,
- '22년에 발생하지 않은 재해도 다수 집계되어 있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의 발표 결과와는 상이함

③ 사고사망 통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 그간 공식적인 사고사망 통계는 승인통계가 유일하였으나, 승인 통계는 사고 발생에서 보상 승인까지 평균 4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어 즉각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 보상 범위의 확대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재해도 집계가 되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따라서, '22년 3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조사통계를 공식화하여 산재 예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 승인통계는 산재발생 현황의 장기간 시계열적인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그 목적을 이원화 한 것임

④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는 어떤 통계가 기준인지?

- 현재 사고사망만인율은 승인통계에 한해서만 산출하고 있어, '로드맵' 상 감축 목표는 승인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
- * $\text{사고사망만인율} = (\text{사고사망자 수} / \text{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times 10,000$

⑤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승인통계 보다 200명 가량 적게 집계 되는데, 이는 사고사망자 수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 두 통계는 집계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연스럽게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함
 - 특히,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및 산안법 적용 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집계 범위가 더 넓어, 수치가 더욱 크게 나타남
-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의 집계가 승인통계 확정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승인통계 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며,
 - 두 통계는 모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발표할 예정임